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 ①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 ②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 ③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 ④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01 ③ 고전시가의 전개방식

‘구지가’는 ‘호명-명령-가정-위협’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제1구 : 거북을 부르는 것은 이 기원을 듣고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할 신격(神格)을 명확히 하는 환기적 의미로 주술적 노래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소원을 들어 줄 대상인 신을 먼저 불러 모신 후에 소원을 말하는 것이기에 대개 첫머리에 놓인다. 따라서 ‘龜’는 신령스러운 존재, 혹은 신령스러운 신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북’은 주술(呪術)의 매체로 쓰이고 있다.

제2구 : 명령을 통하여 기원하는 바의 대상이 ‘首’라는 한자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에 주술의 목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首’는 ‘머리, 목’ 또는 ‘우두머리’의 뜻으로 쓰이는데, 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생명’의 이미지를,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수로왕’의 이미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제3구 : ‘若’이라는 가정을 통해 구워서 먹겠다는 위협을 하고 ‘不’라는 부정을 통해 이후에 강한 제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제4구 : 3구의 가정과 조건을 통해 최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출전: 고대시가, ‘구지가(龜旨歌)’

- 1) 갈래 : 4구체 한역 시가, 서사적 집단 가요, 노동요, 주술요.
- 2) 연대 : 신라 유리왕 19년, 가락국 건국 때
- 3) 성격 : 주술적, 집단적, 직설적 표현, 명령 어법
- 4) 별칭 : 영군가(임금을 맞이하는 노래), 영신군가, 가락국가
- 5) 주제 : 수로왕 강림 기원, 생명 탄생의 염원
- 6) 의의 : 현전 최고의 집단 무요, 주술성을 지닌 현전 최고의 노동요로 가락국 건국신화에 삽입되어 있는 주술적인 노래이다.
- 7) 구성
 - 龜何龜何(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 호명
 - 首其現也(수기현야) 머리를 내어라. - 명령
 - 若不現也(약불현야) 내어 놓지 않으면, - 가정
 - 燔灼而喫也(번작이깍야) 구워서 먹으리. - 위협
- 8) 어휘 풀이
 - 龜何(구하) : ‘거북아’라는 뜻으로 ‘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용(龍)과 더불어 동양에서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간주하고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보는 주술(呪術)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何’는 고어에서의 호격조사 ‘하’를 음차(音借)한 것으로 고려 시대 이전에는 ‘존칭’의 뜻이 없었다고 하지만 호격 조사 정도로 간주하면 될 것 같다.
 - 首(수) : ‘머리’, 또는 ‘목’의 뜻으로 보아 ‘생명’의 심상으로 파악하려는 견해와 수로왕의 ‘首’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 若不現也(약불현야) : 若은 만약을 뜻하며, 만약에 (머리를) 나타내지 않으면, 내어 놓지 않으면
 - 燔灼(번작) : (불에) 굽다
 - 喫也(깍야) : 먹다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삼을 씻는다.
-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 ③ 화자는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02 ④ 현대시의 이해

이 시는 1970년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도시 노동자인 화자가 하루 일을 끝내고 흐르는 강물에 삼을 씻으며 고단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중년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산업화 시대에 소외되고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은 객관적 배경이 아니라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요소이다.

- ①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일이 끝나 저물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전: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1) 성격: 성찰적(省察的), 회고적, 비판적
- 2) 어조: 체념적인 어조, 독백 형식의 절제된 어조
- 3) 구성:
 - 1-4행: 강물에서 인생 의미 발견 - 강물에 퍼다 버리는 삶의 고뇌
 - 5-8행: 삶의 무력감과 실의감 - 삶에 대한 무력감과 실의
 - 9-12행: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반추
 - 13-16행: 가난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 - 암담한 현실에 대한 체념
- 4) 주제 : 강물에 삼을 씻으며 느끼는 인생의 의미(중년 노동자의 비애, 도시빈민 노동자의 비애), 민중의 고단한 삶과 애환

2017. 04. 0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食客)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 모수(毛遂)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만 한다면 끝뿐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03 ② 한자성어의 유래

<보기>의 글은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유래로서, 이 성어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드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① 오월동주(吳越同舟: 吳 성 오/越 념을 월/同 한가지 동/舟 배 주)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라도 협력하게 된다. 즉, 서로 원수지간이면서도 어떤 목적을 위하여는 부득이 협력을 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② 낭중지추(囊中之錐: 囊 주머니 낭/中 가운데 중/之 갈 지/錐 송곳 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 의미.

[유] 계군고학(鷄群孤鶴), 계군일학(鷄群一鶴), 군계일학(群鷄一鶴), 발군(拔群), 백미(白眉), 절륜(絶倫), 추낭(錐囊), 추처낭중(錐處囊中), 출중(出衆), 학립계군(鶴立鷄群).

[속] 주머니 속에 들어간 송곳이라.

③ 마이동풍(馬耳東風: 馬 말 마/耳 귀 이/東 동녘 동/風 바람 풍)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동] 우이독경(牛耳讀經), 우이송경(牛耳誦經), 대우탄금(對牛彈琴)

[속] 쇠귀에 경 읽기. 말의 귀에 봄바람 부나마나.

④ 근목자흑(近墨者黑: 近 가까울 근/墨 먹 묵/者 놈 자/黑 검을 흑) 먹 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

[유] 근주자적(近朱者赤), 굴화위지(橘化爲枳), 남굴북지(南橘北枳), 맹모 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상] 마중지봉(麻中之蓬), 봉생마중(蓬生麻中),

[속]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최악해진 탓 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①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 ②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③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④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04 ② 내용 확인하기

영달이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하게 된 것은 등에 업힌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②의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영달이가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고, 이후 싫어하는 내색은 없다.
- ③ 영달이는 등에 업힌 백화가 가벼워서 대전에서의 옥자를 떠올린다.
- ④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 ④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05 ③ 어휘의 문맥적 의미

<보기>의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의 뜻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③번이다.

- ①은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의 뜻이다.
- ②와 ④는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의 뜻이다.

2017. 04. 0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최일남, 『노새 두 마리』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어수선하며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06 ① 우리말 어휘의 의미

- ① ‘시망스럽다’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 ② 활발하다(活潑--):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 ③ 산만하다(散漫--):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 ④ 잔망스럽다(孱妄---): ㉠보기에 몹시 약하고 가냘픈 데가 있다.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 알뜰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 ① 강행군
- ② 강기침
- ③ 강타자
- ④ 강염기

07 ② 우리말 접두사와 한자어의 구별

② ‘강기침’의 ‘강-’은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우리말 접두사이다.

예) 강기침, 강모, 강서리.

- ① 강행군(強行軍: 強 강할 강/行 다닐 행/軍 군사 군) 어떤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함.
- ② 강기침: ‘마른기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강타자(強打者: 強 강할 강/打 칠 타/者 농 자) 야구에서, 타격이 강한 타자.
- ④ 강염기(強鹽基: 強 강할 강/鹽 소금 염/基 터 기) <화학>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으로 완전히 해리되는 염기.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따위가 이에 속한다. [비슷한 말] 강알칼리.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갈다)
-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불다)
-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이르다)
-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들르다)

08 ② 용언의 기본형

②의 ‘불은’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의 동사 ‘불다’의 활용형이다. ‘불은(불은), 불어(불+어)’의 형태로, 어간의 ‘ㄷ’이 ‘ㄹ’로 변

하는 ㄷ 불규칙 활용을 한다.

‘불다’는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와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는 뜻의 동사는 ‘붓다’이다.

- ① ‘갈다’는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는 뜻의 동사로서, ‘가니(갈+니)’, ‘가오(갈+오)’, ‘갈수록(갈+ㄹ 수록)’의 형태로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활용을 한다.
- ③ ‘무엇이라고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르다’는 ‘일러(이르+어), 일렀다(이르+었다)의 형태로, 어간의 ‘ㄱ’이 탈락하고 ‘ㄹ’이 덧생기는 르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④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는 뜻의 동사 ‘들르다’는 ‘들러(들르+어), 들렀다(들르+었다)’의 형태로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러불규칙 활용을 한다.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러 보내며 언제나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여문 밤톨만 한 흑이 달리고 그 흑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꼬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뿔었다.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의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고기로 달래요.

중국인을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덩석 베어 내었다.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①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 ④ ‘나’의 말에 대한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09 ③ 내용 유추하기

제시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았다.

- ① 푸줏간에서 어머니의 주의를 잊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하는 어머니의 주의를 보면 어머니의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4월 8일 국가직 9급/사회복지직

2017. 04. 0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성격이 남에게 당하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말에 대한 푸죽간의 '중국인'은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꾸룩꾸룩 웃으며' 하는 행동으로 보아 못마땅해 하거나 기가 막히는 듯 어이없게 여기고 있다.

※오정희, 「중국인 거리」

1. 해제: '중국인 거리'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중국인 거리를 배경으로 하여 한 여자아이의 성장 과정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중국인 거리는 하층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일종의 빈민가이다. '나'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그 과정은 삶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발견의 연속이다. 이것은 아기의 탄생을 축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나 검둥이에게 학대를 당하여 죽는 매기 언니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된다.

작품의 결말에서 '나'가 느끼는 첫 생리는 이런 과정을 겪은 뒤에 찾아오는 것으로, 이는 '나'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2. 핵심정리

- 1) 갈래: 단편 소설, 성장 소설
- 2) 성격: 회상적
- 3)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4) 배경

• 시간 - 6.25 전쟁 직후

• 공간 - 항구 도시에 위치한 중국인 거리

5) 주제: 유년 시절의 체험과 정신적·육체적 성장

3. '중국인 거리'의 공간적 배경

• 중국인 거리는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으로, 전쟁 직후의 참담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나'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이주한 곳으로, 낯설고 새로운 공간이다. '나'는 이러한 공간에서 자라면서 매기 언니의 죽음과 할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출산 등을 경험한다.

•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확장해 가고, 급기야는 초경을 한다. 중국인 거리는 '나'의 정신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을 함께하는 공간인 것이다.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속에 응어리진 어

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10 ④ 내용 파악하기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① 4번째 단락에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 ③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모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①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 ②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4월 8일 국가직 9급/사회복지직

2017. 04. 0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③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 ④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11 ② 현대시의 감상

② ‘흰나비’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같은 존재이자 연약한 존재임을 세상물정 모르는 공주로 표현한 것이다. ‘나비의 의지 부족’이나 ‘방관적 태도’는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① ‘삼월(三月)달 바다’에는 흰나비가 찾는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프고,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흰나비’에게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된 것이다.

②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③ 1연에서는 바다의 무서움을 모른 채 바다에 다가가는 나비의 순진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때 ‘바다’는 깊은 수심을 지닌 거대한 세계이고, 그 ‘바다’를 날고 있는 ‘나비’는 바다의 위험, 즉 수심의 깊이를 모르는 순진한 존재이다.

④ 이 작품에서 ‘나비’는 순진한 꿈을 품은 존재이며, ‘바다’는 냉혹한 세상을 의미하고, ‘청무밭’은 ‘흰나비’가 원하는 낭만적인 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이다.

※출전: 김기림, ‘바다와 나비’

-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 2) 심상 : 시각적 심상(흰 나비, 푸른 바다, 새파란 초생달)
- 3) 성격 : 감각적, 상징적, 묘사적, 주지적
- 4) 구성 : 흰나비(흰색, 순진한 존재, 나약한 지식인) ←대조 → 바다(파란색, 냉혹함, 불모성, 거대한 문명)
 - 1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나비
 - 2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형과 시련 - 돌아오는 나비
 - 3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좌절 - 흰 나비와 파란 초생달
- 5) 주제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 순진하고 낭만적인 꿈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

1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고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파나마폴의 잎을 잘게 쪼개어서 만든 여름 모자)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황금광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황금을 찾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는 세태)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당시 세태에 대한 구보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찾은 심표를 통해 구보의 고뇌하는 태도를 드러냄)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短杖: 짧은 지팡이)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진실한 인생(목적이 있는 삶(자신과 대비됨)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광업에 관한 모든 제출서류를 광업령에 의거하여 대신 써 주던 영업소).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사람들이 금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사람들의 사행심((射倖心: 요행을 바라는 마음),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황금의 열기가 국가 전반을 휩쓸고 있음을 보여 줌)

-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①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② ㉡: 적극성을 지닌 존재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 ④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12 ② 현대소설의 문맥적 의미 파악

② 구보는 이 시대의 무직자들이 모두 금광 브로커라고 하면서, ‘황금광(황금에 미쳐 있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1930년대 당대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세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광 브로커’는 예찬의 대상이 아니다.

① 구보는 ‘개찰구’에서 ‘두 명의 사나이’의 차림새를 보고 무직자이며 금광브로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었다는 것을 통해 당시에 무직자가 많았으며, 황금광 열풍에 휩쓸린 세태를 드러내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황금광 시대’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고 하여 당대의 지식인들조차 황금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황금광 시대’는 구보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당시 세태이며, 한숨을 유발하고 있다.

④ 고도의 ‘금광열’은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금광열’이 고조된 공간으로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출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1. 해제: 작가 박태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自傳的) 소설로, 발표 직후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목적 없이 집을 나선 '구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도중에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 단편적인 여러 사실들, 그리고 그에 의해 촉발되는 두서없는 생각들의 연속인 이 소설에서 1930년대 나약한 지식인의 일상사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4월 8일 국가직 9급/사회복지직

2017. 04. 0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日常事)를 엿볼 수 있다.

2. 핵심정리

- 1) 갈래: 중편 소설, 심리 소설, 세대 소설
- 2) 성격: 관찰적, 심리적, 묘사적
- 3) 제재: 황금광 시대
- 4) 주제: 1930년대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
- 5) 특징
 - 소설가 구보의 내면 의식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음.
 - 황금광 열풍이 불던 당시의 시대상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음.

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남)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 만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용맹)이 있고 백만군중 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暴惡: 사납고 악함)이 무쌍(無雙: 서로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거나 심함)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正言: 조선 시대에 정육품 벼슬) 주부(注簿: 조선 시대에 종육품 벼슬)인 유심의 직간(直諫: 임금이나 웃어른에게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직접 간함)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上疏: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13.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웅위하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흥향(歆饗: 신명(神明)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한다. 길조(吉兆: 좋은 일이 있을 조짐. '좋은 조짐'으로 순화)가 여차(如此: 이렇다. 상대, 모양, 성질 따위가 이와 같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 신선 세계의 관원)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仙官: 신선 세계의 관원)이더니 익성(翼星: 이십팔수(二十八宿)의 하나, 여기서는 천상의 성관(星官)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呑心: 나쁜 마음을 품음. 문맥을 고려하면 익성이 자신의 무도함 때문에 귀양갈 일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을 갖고 있다가 백옥루의 잔치 때에 선관과 싸우게 되었다는 뜻이다)하야 ㉢백옥루(白玉樓: 천상의 누각)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 서로 맞서서 싸움)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得罪: 남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죄를 얻음)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덕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恤(愛恤: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 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일후 풍진(風塵: 전쟁,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복선으로 주인공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활약이 있을 것임을 암시)”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여 정언(正言: 조선 시대에 정육품 벼슬) 주부(注簿: 조선 시대에 종육품 벼슬)를 청입(請入: 들어오기를 청함)하여 몽사를 설화(說話: 이야기)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여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개월(個月), 달을 세는 단위)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 상서로운 기운)가 뽀질러 생광(生光: 빛이 남)은 만지(滿池: 못에 물이 차서 가득함. 여기서는 상서로운 빛이 가득함)하고 서채(瑞彩: 상서로운 빛깔)는 충천(衝天: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름)하였다.

...(중략)...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都總大將)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兵部尙書)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

- ① ㉠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 ‘부인’이 꾸 꿈의 상황이다.
- ③ ㉢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④ ㉣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13 ④ 고전소설의 문맥적 의미 파악

④의 ㉣은 선관이 자신이 타고 온 청룡을 방송하면 한 말이다. 복선으로 주인공(선관=총렬)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활약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① ‘흥향(歆饗)’은 ‘제물을 받아서 먹음’을 뜻한다. 부인이 빌기를 다하여 신령이 하강하여 제물을 모두 받아서 먹었다는 내용이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도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명나라 사람 유심과 부인 장씨는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다가 남악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신이한 태몽을 꾸 뒤 아들 ‘총렬’을 얻는다.

② 선관이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다.

③ ‘익성과 대전(對戰: 서로 맞서서 싸움)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다.

※출전: 『유충렬전』

1. 해제: 『유충렬전』은 『조웅전』과 함께 조선 후기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천상계의 신선이었던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적강하여 간신의 모해와 반역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가문과 국가를 구출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내용 전개는 ‘주몽 신화’에서 비롯된 영웅 서사 구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핵심정리

- 1) 작자, 연대: 미상
- 2) 갈래: 고대 국문 소설, 군담 소설, 영웅 소설
- 3) 배경:
 - 공간적: 유심 일파와 정한담 일파가 각축을 벌이는 명나라 조정과 중국 대륙
 - 시간적: 허구적 시간(병자 호란 후의 조선 후기 역사적 시간이 상징화됨)
 - 사상적: 불교 사상(유충렬의 출생과 구출, 무예 연마 과정), 유교사상(국가와 군주를 위한 입신양명, 집안을 위한 부귀공명)

2017. 04. 0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4.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 설명, ㉡ 묘사, ㉢ 서사, ㉣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 |
|------|----|----|----|
| ㉠ | ㉡ | ㉢ | ㉣ |
| ① 說明 | 猫鯊 | 徐事 | 論證 |
| ② 說明 | 猫鯊 | 徐事 | 論症 |
| ③ 設明 | 描寫 | 敘事 | 論症 |
| ④ 說明 | 描寫 | 敘事 | 論證 |

14 ④ 한자 어휘

- 설명(說明: 說 말씀 설/明 밝을 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 묘사(描寫: 描 그릴 묘/寫 베낄 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그려 냄'으로 순화.
- 서사(敘事: 敘 펼 서/事 일 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 논증(論證: 論 논할 논/證 증거 증)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 ① 병이 씻은 듯이 날았다.
-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 ④ 옷가지를 이어서 뺏겨서 만들었다.

15 ③ 한글맞춤법

③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물, 가스 따위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다', '옷을 입고 단추를 끼우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 등의 뜻일 때, '잠그다'가 옳다. 이를 '잠구다'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① 날았다 → 나았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몸의 이상이 없어지다'는 '낫다'이고, '사람이나 동물이 아이 또는 새끼나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는 '낳다'이다.

② 넉넉치 → 넉넉지

'-하지' 앞이 무성음(ㄱ, ㅋ, ㆁ)일 때는 '하' 전체가 탈락하고 '지'만 남는다. '넉넉지(넉넉하지), 익숙지(익숙하지), 거북지(거북하지), 답답지(답답하지), 섭섭지(섭섭하지), 깨끗지(깨끗하지), 땃땃지(땃땃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 앞이 유성음(모음이나 ㄴ, ㄹ, ㄷ, ㄹ)일 때는 'ㅏ'만 탈락하고 'ㅎ+지=치'가 된다. '흔치(흔하지), 만만치(만만하지), 간단치(간단하지), 적절치(적절하지), 온당치(온당하지), 가당치(가당하지)' 등이 그런 예다.

④ 이어서 → 이어서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는 뜻의 동사는 '잇다'이다. '잇(어간)+어서=이어서'의 형태로 어간의 ㅏ 이 탈락하는 ㅏ 불규칙 활용을 한다.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 ① ㅎ
- ② ㄷ
- ③ ㅠ
- ④ ㅍ

16 ④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

④의 'ㅍ'은 순음(ㅁ, ㅂ, ㅍ, ㅃ)아래에 ㅇ 를 이어쓰는 연서(連書)규정에 의한 순경음으로서 28 자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ㅎ'은 가획자, ②의 'ㄷ'은 이체자, ③의 'ㅠ'은 모음 재출자이다.

※ 자음의 기본자와 가획자 및 이체자(17자)

이름	기본자	상 형	가획자	이체자
아음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ㅋ	ㅇ
설음	ㄴ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ㄷ ㅌ	ㄹ(반설음)
순음	ㅁ	입의 모양(象口形)	ㅂ ㅃ	
치음	ㅅ	이의 모양(象齒形)	ㅆ ㅈ	ㅊ(반치음)
후음	ㅇ	목구멍 모양(象喉形)	ㅎ	ㅇ

※ 중성 체계(11자 체계)

	단모음		이중 모음
양성 모음	· (天)		
음성 모음	— (地)	ㅏ, ㅑ	ㅓ, ㅕ
중성 모음	ㅣ (人)	ㅓ, ㅑ	ㅗ, ㅛ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 ②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 ③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 ④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17 ④ 띄어쓰기

④ 무엇을 하는 동안을 뜻하는 '중'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그러나 '한밤중, 밤중, 은연중, 부재중' 등은 합성어로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① 안 된다 → 안된다

'안 된다'는 '되다'의 부정형이다. 잘되거나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아예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장사가 안 돼 가게를 접어야겠다"처럼 사용된다.

동사 '안되다'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돼 큰일이다.',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와 같이 쓴다. 또한 형용사 '안되다'는 섭섭하거나 가엾고 애석한 느낌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부사 '안'을 써서 '안 되다'와 같이 쓴다.

② 두 시간만에 → 두 시간 만에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만'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2017. 04. 0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③ 잘할 뿐더러 → 잘할뿐더러

‘-ㄹ뿐더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써야 한다.

※동사 ‘안되다’

- ㉠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돼 큰일이다.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 ㉡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 ㉢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형용사 ‘안되다’

- ㉠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예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됐다.
- ㉡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예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18 ① 한자 어휘의 독음

- ①은 모두 독음이 맞다.
- ② 치열 → 작열(灼熱), ③ 형자 → 형극(荊棘), ④ 악한 → 오한(惡寒)

①
• 탐험(探險: 探 찾을 탐/險 험할 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
• 모순(矛盾: 矛 창 모/盾 방패 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 화폐(貨幣: 貨 재물 화/幣 화폐 폐)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

② 치열 → 작열(灼熱)
• 사기(詐欺: 詐 속일 사/欺 속일 기) 나쁜 꾀로 남을 속임.
• 야기(惹起: 惹 이끌 야/起 일어날 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작열(灼熱: 灼 불사를 작/熱 더울 열) 불 따위가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름.

③ 형자 → 형극(荊棘)
• 형극(荊棘: 荊 가시나무 형/棘 가시 극) 나무의 온갖 가시. ‘고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파탄(破綻: 破 깨뜨릴 파/綻 터질 탄) ㉠ 찢어져 터짐. ㉡ 일이나 계획 따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잘못됨.
• 통찰(洞察: 洞 밝을 통./察 살필 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④ 악한 → 오한(惡寒)
• 잠언(箴言: 箴 경계 잠/言 말씀 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따위이다.
• 오한(惡寒: 惡 미워할 오/寒 찰 한)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
• 사치(奢侈: 奢 사치할 사/侈 사치할 치)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ㄴ, ㄹ, ㅇ’은 유음이다.
-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③ ‘ㅡ, ㅣ, ㅏ’는 후설 모음이다.
- ④ ‘ㄱ, ㅋ, ㆁ, ㆑’는 원순 모음이다.

19 ① 국어의 음운

①의 ‘ㄴ, ㄹ, ㅇ’은 비음에 해당한다. 유음은 ‘ㄹ’이다.

※자음 체계도

조음 방식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입술소리	(혀끝소리)	(입술소리)	(혀끝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ㅃ	ㄸ			ㄱ	
		된소리	ㅍ	ㅌ			ㅋ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단모음 체계도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	ㅕ	ㅗ	ㅜ	ㅛ
	저모음	ㅗ	ㅜ	ㅝ	ㅟ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



2017. 04. 08.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가) - (다) - (나) - (라)
- ④ (가) - (라) - (나) - (다)

20 ② 단락의 논리적 연결

문장이나 단락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때에는 각 문장의 처음에 제시되는 지시어나 접속어에 유의해야 한다.

지시어가 제사되지 않은 (가)의 문장이 맨 앞에 위치한다. 지시어와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 ~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 **그러나** ~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이 있다. →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